

품질개선 요구되는 미산 옥수수

소맥시세 하락세, 수수시세 강세 전망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품질개선 요구되는 미산 옥수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던 미산 옥수수 시세가 다소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산 옥수수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한때 C&F 80불 이하로까지 떨어졌던 미산 옥수수가 태국, 또는 중공산 옥수수에 대해 가격경쟁력은 회복했으나 품질저하 현상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이미 중공산 옥수수에 대해서는 품질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이고, 과거 저질 옥수수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던 태국산 옥수수한테마저 자칫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물려받아야할 처지에까지 와있다.

근래 한국사료협회산하 사료기술연구소에서 최근 도착한 미산 옥수수 두 모선에 대해 미농무성 품질규격중 BCFM(파쇄, 손상, 이물질)을 조사해 본 결과 각각 21.48%와 29.34%로 US No₃ 옥수수의 표준규격인 11%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반면 태국산 옥수수는 7.01%로 BCFM은 양호한데 반해 Aflatoxin은 미산에 비해 높은 편이고, 중공산은 BCFM, Aflatoxin 모두가 양호한 실정이다. 이같은 수치가 최근의 일부 모선에 국한되고 있기때문에 전적으로 미산 옥수수의 품질저하를 논할 수는 없지만 연구소나 업계에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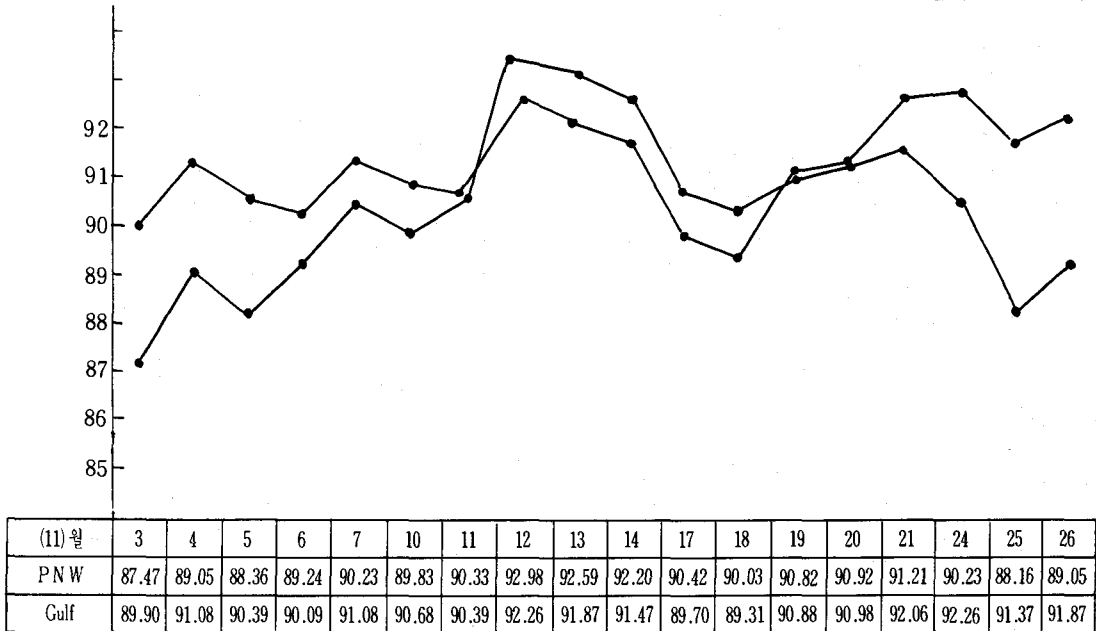
두 미산 옥수수의 품질저하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때문에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품질저하현상과 관련하여 국내 사료업계 일각에서는 기존의 US No₃ Yellow Corn 구매 대신 한단계 높여 US No₂ Yellow Corn 구매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최저입찰구매제도가 가져다주는 불가피한 결과인 만큼 근본적인 구매방법의 개선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자성도 일고있다.

아 물론 이와같은 미산 옥수수의 품질 저하현상은 일반 수요자의 육안으로도 확인될 만큼 심각해지면서 그동안 중공, 태국, 아르헨티나산 옥수수의 가격경쟁에 뒤져 고전하다가 겨우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선 적신표가 아닐 수 없다. 더우기 최근 수입되는 미산 구곡옥수수는 미연방정부의 농업정책에 의해 장기보관된 물량이고 보니 현재 재고 누증으로 고민하는 미국 입장으로는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다. 이와같은 현상에 대해 아직은 가격이 낮고 CCC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 미상품신용공사)가 보유하는 구곡방출로 인한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관용(?)을 보이고는 있지만 앞으

1. 옥수수 시세동향

단위 : US\$/MT



로도 이같은 문제가 계속 누적될 때 그동안 미산 옥수수가 쌓아온 신뢰도에 금이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태국산 옥수수에 대해서만 꾸준히 품질개선을 요구해 온 우리의 입장으로서 이제 미산 옥수수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아무래도 향후 2~3년간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미산 구곡옥수수에 의해 국제사료곡물 시장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 소련의 곡물수입가능성 희박

소련은 금년도 곡물생산량이 2억천만톤으로 사상 두번째 기록을 달성했다고 지난 11월 6일 소련의 고위관리인 리가초프(Igor Ligachev)가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농무성(USDA)이나 국제소맥위원회(IWC)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2~3천만톤이 많은 양이다. 이와같은 발표로 인해 미국 곡물시장에서 곡물시세가 다소 하락세를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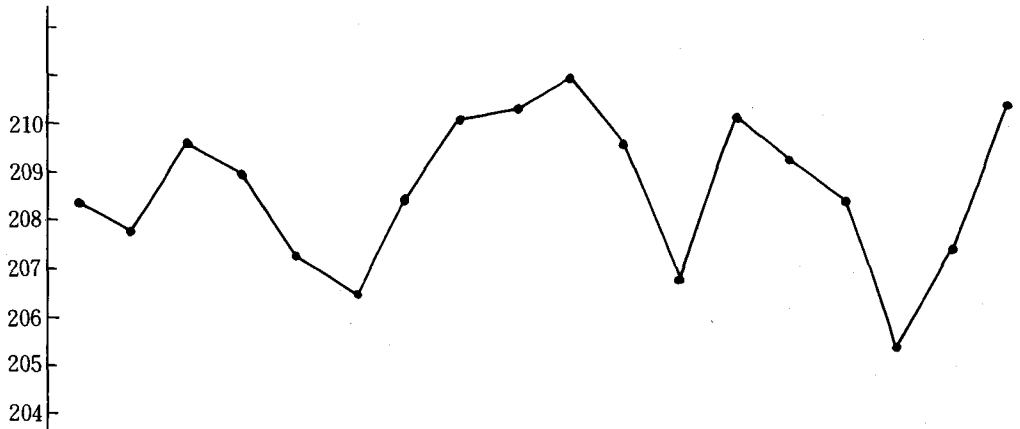
낸 바 있으며, 일부 곡물메이저들 역시 “소련이 미산 옥수수 구매계약을 이행할 것이 비관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USDA 당국자도 만일 이와같은 소련의 곡물생산량이 정확하다면 곡물 구매가 없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논평한 바 있다.

소련은 지난 1980년 이후 공식적으로 곡물생산량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최근 1981~85년의 생산량을 발표하였다. 대체로 미농무성의 추정량과 큰 차이가 없는 바 1985년의 경우 미농무성의 추정량은 1억 9천만톤이었고, 소련의 발표는 1억 9,167만톤이었다.

소련의 금년도 곡물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소련에 주재하는 미농무관에 의해 예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소맥위원회나 미농무성에서는 10월까지만해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국제소맥위원회는 지난 10월 금년도 소련의 곡물생산량을 1억 8,500만톤으로 추정하고, 곡종별로는 소맥 7천만톤, 사료곡물 9,400만톤 등으로

2. 대두 시세동향

단위 : US\$/MT



(11)월	3	4	5	6	7	10	11	12	13	14	17	18	19	20	21	24	25	26
C&F 가격	208.55	208.09	209.83	209.19	207.54	206.98	208.64	210.09	210.29	210.84	209.65	207.08	210.02	209.37	208.54	205.97	207.72	210.38

예상하였다. 따라서 소련은 소맥 1,500만톤, 사료곡물 1,300만톤, 기타 100만톤 등 총 2,900만톤의 곡물을 수입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미농무성 역시 금년도 소련의 곡물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천만톤이 감소한 1억 8천만톤으로 추정하고, 소맥 1,600만톤, 사료곡물 1,500만톤, 기타 100만톤 등 3,200만톤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련은 세계제일의 곡물수입국으로 미국이나 타 수출국들의 곡물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따라서 이와같은 소련의 곡물 생산량 증가가 사실이라면, 향후 곡물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며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호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련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과 장기 곡물구매계약을 맺고 있다. 소련이 이 협정들을 제대로 이행하여 오지는 않지만 미국(1983~88)에서 연간 850만톤, 캐나다(1986~91)에서 500만톤, 아르헨티나(1986~90)에서 사료곡물 400만톤, 대두 50만톤 등 모두 450만톤의 곡물을 수입하도록 되어있다. 이같은 대소 곡물협정에 따르면 소련은 연간 최소 400만톤의 옥수수를 구매하

게 되어있으나 최근 시장분석가들은 이같은 여건 하에서라면 소련은 금년도에 옥수수를 최대 200만톤, 또는 전혀 옥수수를 구매하게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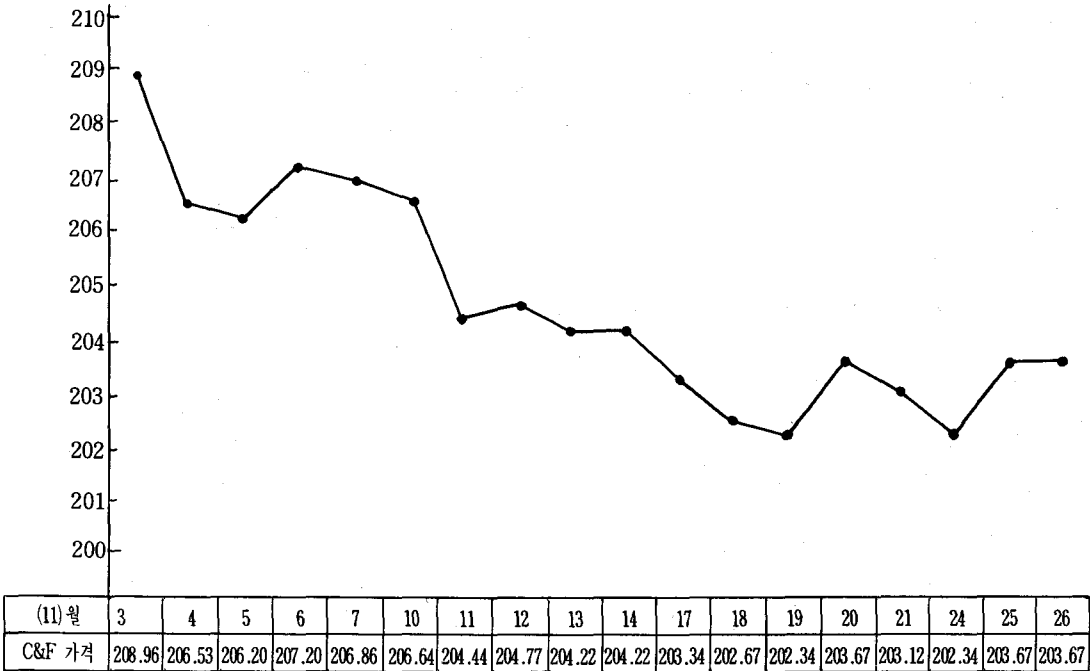
■ 소맥시세 급락

옥수수시세가 지난 10월이후 점차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맥시세가 크게 떨어져 소맥수입량이 늘어가고 있다. 즉 C&F 톤당 78불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던 사료용 소맥시세가 최근에는 71~72불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호주, 캐나다, 타 3개국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년도 캐나다의 소맥생산량은 3,130만톤으로 지난해의 2,430만톤에 비해 28.8%나 크게 증가했으나 수확기의 기후악화로 인해 사료용 소맥(damaged)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사료용 소맥의 경우 앞으로 호주와 EC의 시장개입이 계속되는 한 시장가격은 안정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와같이 소맥시세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수수시세는 강세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3. 대두박 시세동향

단위 : US\$/MT



미산 수수의 경우 미산 옥수수시세와 거의 비슷한 가격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중공산 수수의 경우 물량부족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곡류시세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강피류인 소맥피시세는 계속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일본의 독점구매로

인해 수입이 중지되어오던 호주산 투핀시드가 금년도에는 대풍작으로 인해 75~80만톤 생산이 예상되고 있고 일본의 전농 뿐만아니라 민간계 사료 공장들도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수입예상가격은 C&F 톤당 120~130불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월간양계」 편집국에서는 86년 12월호를 발간하며 그간 원고를 투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독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 바랍니다.

— 편집국 일동 —